	보 도 자 료				GLOBAL TOP 10 CITY	
인천광역시	배포일자		'월 16일(화) · 2매		세계 10대 도시 인천	
담당 재외동포 부서 협력기획과	담당자	• 차세대네트 • 담당자		오혜원 <b>☎</b> 44 김세은 <b>☎</b> 44		
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10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00명 재외동포 청소년, 인천을 경험하다.

- 2024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 인천서 2박3일 체류 -
  - 인천 첨단기업 및 학교 방문 ··· 역사·문화 체험도 -

인천광역시는 재외동포청이 주최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주관하는 '2024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에 1,200명의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인천으로 초청한다고 밝혔다.

'2024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는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2001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사업으로, 차세대 재외동포들에게한국의 정치·경제·문화·역사 등 체험 기회를 통해 한인으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국내 청소년과의 상호 유대감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재외동포 청소년 1,200명이 7월 15일부터 총 4회에 걸쳐 각 6 박7일 동안 인천-경주-서울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매주 진행된다. 이 는 역대 최대 규모로 2박3일 인천 체류 일정에는 관내 청소년 600명 도 함께 참여한다.

이번 모국 연수는 재외동포청 인천 출범 이후 인천시에서 개최되는 첫 대규모 공식 행사다. 시는 재외동포를 품는 1,000만 도시 인천 비전과 매력을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국연수단은 인천에 머무는 2박3일 일정 동안 관내 고등학교(서구 아라고, 계양 예일고)를 방문해 인천시 학생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바이오·첨단 산업체(삼성바이오로직스, GMTCK, 숨비)와 미래 발전상(인스파이어 르스페이스)을 견학하며, 개항장 투어를 통해 인천의역사와 역사·문화를 체험한다.

인천시 특화 프로그램은 인천시 교육청과 협력해 발굴・제공한다.

유정복 시장은 16일 오전 그랜드하얏트인천에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이자 글로벌 톱텐 시티로 도약하는 인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향해 새롭게 변하고 있는 인천의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고 더 많이 알아가는 추억의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 관련 사진은 11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미디어'→ '포토인천'→'포토시정'(https://tv.incheon.go.kr)에 게시될 예정입니다.